

## 참고문헌

### 특집 |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

#### 역풍을 극복하는 법: 오사카의 가능성 | 이노우에 도모카쓰

木津川計, 『文化の街へ 大阪・二つのアプローチ』, 大月書店, 1981.

木津川計, 『含羞都市へ』, 神戸新聞出版センター, 1986.

野口悠紀雄, 『一九四〇年体制(増補版)』, 東洋経済新報社, 2010.

武部善人, 『大阪産業史』, 有斐閣, 1982.

町田光弘, 「本社機能の地域的分布」, 『産開研論集』第24号, 2012.

町田光弘, 『大阪における企業の本社機能: 企業の本社機能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 報告書』,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2004.

坂本二郎, 「東京本社 大阪現場論」, 『(別冊)中央公論 経営問題』, 昭和四十一年秋期特大号(5-3), 1966.

砂原庸介, 『大阪: 大都市は国家を超えるか』(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2012.

大阪市立大学経済研究所 編, 『世界の大都市 7 東京・大阪』, 東京大学出版会, 1990.

井上智勝, 「聖帝と煤煙: 大阪における歴史意識の転換についての覚書」, 『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第6号 2007.

井上智勝, 「旦那衆文化の伝統」, 『共同研究 研究成果報告書』第8号, 大阪歴史博物館, 2014.

梅棹忠夫, 『日本三都論』, 角川書店, 1987.

阪神間モダニズム実行委員会 編, 『阪神間モダニズム』, 淡交社, 1997.

八田達夫 編, 『東京一極集中の経済分析』, 日本経済新聞社, 1994.

原武史, 『「民都」大阪対「帝都」東京』(講談社選書メチエ), 講談社, 1998.

藤本建夫, 『東京一極集中のメンタリティー』, ミネルヴァ書房, 1992.

#### 지방의 국제화에 나타난 일본의 중앙-지방 간 관계: 지방정부의 정책 리더십 재조명 |

##### 양기호

양기호,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출판사, 2012.

小川雄平, 『東アジア地中海經濟圏』, 九州大學出版會, 2006.

北脇保之, 「自治体国際化施策の変遷と多文化共生の現状と課題」, 『国際文化研修』, 2013 秋.

佐藤久美, 「日本の国際化政策の進展に関する中央政府と地方自治体の関係性の变化: 国際交流から多文化共生へ(上)/(下)」, 『金城大学学院論集』, 2013. 9/2014. 3.

- 首藤信彦 編, 『冷戦後世界と自治体の役割: 予防外交における市民・自治体間ネットワークの構築』, 財団法人かながわ学術研究交流財団, 1996. 6.
- 高橋直子, 『国際交流の理論: 交流から協力へ』, 勁草書房, 1997.
- 藤巻秀樹, 『移民列島ニッポン-多文化共生社会に生きる』, 藤原書店, 2012.
- 民際外交10年史企画編集委員会, 『民際外交の挑戦: 地域から地球社会へ』, 日本評論社, 1990.
- 山下永子, 『地方の国際政策』, 成文堂, 2008.
- 山脇啓造, 「地方自治体の外国人施策に関する批判的考察」, 『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03. 11.
- 山脇啓造, 「多文化共生社会: 中央と地方」, 『法律広場』, 2016. 6.
- 吉田均, 『国際交流の理論』, 日本評論社, 2001.
- Lincoln, Edward J.,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 Yang, Keeho, "A Critique of Government-Driven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owards Local Government-Centered Policies," *Asian Studies*, University of Philippine, 2014. 1.

###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 | 이영진

- 노라, 피에르, 김인중·유희수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기억의 장소 1』, 나남, 2010.
- 벤야민, 발터,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 벤야민, 발터, 최성만·김유동 옮김, 『독일비에극의 원천』, 한길사, 2009.
- 이영진, 「전시기 가고시마[鹿児島]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 『日本研究論叢』 35, 2012.
-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3), 2012.
-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역사비평사, 2015.
-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びとの記憶』, 御茶の水書房, 2009.
- 生活協同組合コープかごしま, 『忘れまいあれから五〇年: 終戦50周年記念戦争体験文集: 戦争の悲惨さと平和の尊さを語り伝えるために』, 鹿児島, 1995.
- 生活協同組合コープかごしま, 『生協コープかごしま三十年史』, 鹿児島, 2001.
- 生活協同組合コープかごしま・ピースフロン終戦60周年体験継承企画実行委員会, 『伝えたい私からあなたへ: 戦争の悲惨さと平和の尊さを』, 鹿児島, 2005.
- Foucault, Michel, "Film and Popular Memory: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Radical Philosophy* 11, 1975.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Harper and Low, 1980[1950].
- MacCannell, Dean,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1977.
- Olick, Jeffrey. K., "Genre Memories and Memory Genres: A Dialogical Analysis of May 8, 1945 Commemor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3), 1999.

##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경

-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희경, 「핀핀코로리의 비밀: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에서의 생명정치와 노년의 자기윤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김희경,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험」,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22, 서울대학교, 2016.
- 르페브르, 앙리,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정현목, 『마르크 오제, 비장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조아라, 「일본 지방도시의 문화전략과 ‘지역다움’의 논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2008.
- 조아라,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의 공간정치」, 『대한지리학회』 45(1), 2010.
- 水野肇・青山英康, 『PPKのすすめ』, 紀伊国屋書店, 1998.
- 新田充, 「唱歌『信濃の国』における郷土の創出と変容」, 『信濃』 54, 2002.
- 渡辺裕, 「県歌『信濃の国』にみる「中央」と「地方」」, 『Αστειον』 71, 2009.
- 若月純一, 『村で病氣とたたかう』, 岩波新書, 2002.
- Low, Setha M., "The Anthropology of Cities: Imagining and Theorizing the C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96.
- Low, Setha M.,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University of Texas, 2003.

##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 심정명

- 阿部真大,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都会と田舎の間に出現した新しい社会』, 朝日新聞出版, 2013.
- 江弘毅, 『街場の大阪論』, バジリコ, 2009.
- 酒井隆史, 『通天閣: 新日本資本主義発達史』, 青土社, 2011.
- 貞包英之, 『地方都市を考える: 「消費社会」の先端から』, 花伝社, 2015.
- 砂原庸介, 『大阪一大都市は国家を越えるか』, 中央公論新社, 2012.
- 原田曜平, 『ヤンキー経済: 消費の主役・新保守層の正体』, 幻冬舎, 2014.
- 藤吉雅春, 『福井モデル: 未来は地方から始まる』, 文藝春秋, 2015.
- 万城目学, 『プリンセス・トヨトミ』, 文藝春秋, 2009.
- 増田寛也,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新社, 2014.
- 三浦展, 『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 郊外化とその病理』, 洋泉社, 2004.
- 山内マリコ, 『ここは退屈迎えに来て』, 幻冬舎, 2012.

---

## 리뷰논문

###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 박승현

- 노리토시, 후루이치, 이언숙 옮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2015.
- 이영진, 「과국과 분노: 3.11이후 일본 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47(1),

- 2014.
- 하루히토, 다케다, 배석만 옮김,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15호, 2016.
- 히로시, 가이누마,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역사비평』 97호, 2011.
- 大野晃, 『限界集落と地域再生』, 静岡新聞社, 2008.
- 荻野美穂, 『「家族計画」への道: 近代日本の生植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 2008.
- 小田切徳美, 『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 2014.
- 金子勇, 『地方創生と消滅』의 사회학: 日本のコミュニティのゆくえ, ミネルヴァ書房, 2016.
-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 2014.
- 松原洋子, 『優生学と人間社会: 生命科学の世紀はどこへむかうのか』, 講談社, 2000.
- 山下祐介, 『地方消滅の罅: 「増田レポート」と人口減少社会の正体』, 筑摩書房, 2014.
- 吉田寿三郎, 『高齢化社会』, 講談社, 1981.
- Nakamura, Mayu, ナオトひとりっきり (*Alone in Fukushima*), Omphalos Pictures, Japan, Japanese, Color, HDV, 98minutes, 2014.
- Miyake, Kyoko, *Surviving the Tsunami: My Atomic Aunt*, Germany/Japan, English/Japanese, Color, DVD, 52minutes, 2013.

## 연구논단

### 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를 중심으로 | 조정민

- 新川明, 『反国家の兇区』, 現代評論社, 1971.
- 大江健三郎・すばる編集部,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 2001.
- 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 高文研, 1996.
- 鹿野政直, 『沖縄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2011.
- 進藤榮一, 『分割された領土: もうひとつの戦後史』, 岩波書店, 2002.
- 鈴木智之, 『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鉅: 目取真俊の〈文学〉と沖縄戦の記憶』, 晶文社, 2013.
- 新城郁夫, 『沖縄文学という企て: 葛藤する言語・身体・記憶』, インパク出版会, 2003.
- 知花昌一, 『焼きすてられた日の丸: 基地の島・沖縄読谷から』, 社会批評社, 1996.
- 友田義行, 「目取真俊の不敬表現: 血液を献げることへの抗い」,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4), 2011. 3.
- 西川長夫, 『日本の戦後小説: 廃墟の光』, 岩波書店, 1988.
- 根津朝彦, 『戦後『中央公論』と「風流夢譚」事件: 「論壇」・編集者の思想史』, 日本経済評論社, 2013.
-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影書房, 2003.

###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 정진성

- 강성은, 「〈통일교과서〉를 목표로 한 조선학교의 조선사교과서개정에 대하여」, 서중석, 『글로벌화와 인권·교과서』, 역사비평사, 2003.

- 강철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경혜·정희선 외 공역, 『1948년 한신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 경인문화사, 2006.
- 김대성,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희정, 「재일조선학교 교육변화에 관한 연구: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지역연구협동과정 석사논문, 2008.
- 나카무라 일성, 「사상으로서의 조선적-朴正惠씨」 「이 아이들에게 민족의 마음을」 『世界』 3월호, 5월호, 2016. (<http://cafe.daum.net/mongdanglove.UA2F/28,30>).
- 오자와 유사쿠, 이충호 옮김,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해안, 1999,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篇』, 亞紀書房, 1973).
- 윤건차 저.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 윤다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2호, 2004.
- 이법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코마, 2015.
- 정병호,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조선학교의 민족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출판부, 1996.
- 정진성·김은혜, 「민족학교(조선·한국)·학급 전수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도쿄권의 초·중·고 민족학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2007.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 재일동포재단, 2013.
- 朴慶植,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 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2012.
- Ryang, S.,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1997.

## 「경천애인설」에 나타난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사상적 전환 | 이새봄

- 미야지마 히로시, 「후꾸자와 유끼씨의 유교인식」, 한국실학학회 편, 『한국실학연구』 23호, 2012.
- 와타나베 히로시, 「『교』와 음모: 국체의 한 기원」, 『한국·일본·‘서양’』, 아연출판부, 2008.
- 이새봄,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西國立志編』 서문에 나타난 보편성 논의」, 『동방학지』 제172호, 2015.
- 中村正直, 『敬字文集』, 吉川弘文館, 1903.
- 中村正直, 『敬字詩集』, 敬字詩集刊行發行所, 1926.
- 中村正直, 『敬字文稿』, 자필본, 靜嘉堂文庫 소장, 연대 미상.
- 斯邁爾爾著·中村敬太郎 訳, 『西國立志編』, 山田俊藏, 1870~1871.
- 大久保利謙 篇, 『明治文学全集3 明治啓蒙思想集』, 筑摩書房, 1967.
- 久米邦武,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実記(一)』, 岩波文庫, 1977.

朱熹, 『四書章句集註』, 中華書局, 1983.

萩原隆, 『中村敬字研究: 明治啓蒙思想と理想主義』, 早稲田大学出版会, 1990.

小泉仰, 『中村敬字とキリスト教』, フマニタス選書, 1991.

河野有理, 『明六雑誌の政治思想: 阪谷素と「道理」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 2011.

渡辺浩, 『儒教と福澤諭吉』, 『福澤諭吉年鑑』 39, 福澤諭吉協会, 2012. 12.

李セボン, 「中村敬字における「学者」の本分論: 幕末の昌平黌をめぐる」, 『日本思想史学』 第45号, 2013.

##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 이은지

『개벽』, 『동아일보』, 『신생활』, 『신태양』, 『폐허』, 『폐허이후』.

김경수 편, 『두 과산: 염상섭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6.

김경수 편, 『만세전: 염상섭 중편선』, 문학과지성사, 2014.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 1, 소명출판, 2013.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39~1945』, 緑蔭書房, 2002.

長谷川天溪, 『自然主義』, 博文館, 1908.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윤리21』, 2001.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2013.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4.

김지영, 「환멸의 비애를 넘어서기: 1920년대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1, 2007.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심정명, 「한국과 일본의 자연주의 담론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우스이 요시미, 고제석·김환기 옮김, 『일본 다이쇼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임수만, 「유치환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낭만적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최문규, 「독일 낭만주의와 ‘아이러니’ 개념」, 『문학이론과 현실인식』, 문학동네, 2000.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프레데릭 바이 저, 김주희 옮김,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그린비, 2011.

鈴木貞美 外, 『生命で読む20世紀日本文芸』, 至文堂, 1995.

梁智英, 「柳宗悦の朝鮮での〈音樂會〉」, 『日本語文学』 39, 2008.

日比嘉高, 『〈自己表象〉の文学史』, 翰林書房, 2008.